

## 할미새의 탄생

安允植

- ▲ 서울대 농대 축산과 졸업
- ▲ 전 용인자연농원 근무
- ▲ 현 대한제당 사료구매부

### 《할미새》

- 학명 *Motacilla grandis sharpe*
- 참새만한 크기
- 이마 흰색, 뒷머리 목, 밑목 검은색, 눈알 검은색, 귀덮깃(耳羽: ear hair) 검은색
- 보통 시골에서 흰 물새라고 부르기도 함
- 꼬리는 흰색으로 길다. 살랑살랑 흔들면서 날은다.

사람들은 할미새 하면 어느 비 오는 날 집가나 무덤이 있는 들녘에서, 냇가에서, 처량하게 우는 새의 일종이라고 알고있다. 할미새는 백할미새(Korean pied wagtail), 검은등할미새(Japanese wagtail), 검은턱할미새(Streak-eyed wagtail),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일본, 대만에 분포하는 참새 크기만한 새로, 여름에는 우리나라 본토 전역에서 번식하여 겨울이 되면 제주도 남쪽이나, 멀리 일본이나 대만까지 이동해 가는 철새무리에 속하며, 주로 흐르는 물가에서 둥우리를 짓고 모기, 파리, 하루살이 등의 해

충류나 거미, 달팽이를 잡아먹고 사는 예쁜 새인데, 외모를 보면 검은색과 흰색이 깨끗이 단장되어 마치 머리가 희끗 희끗이 세어진 할머니가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곱게 나들이 차림으로 나선 모습을 연상케 된다. 그래서 할미새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떠난 남을 그리다가 할머니가 되어버린 애절한 처녀의 낮이 변하여, 새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봄이 되어 물가에 나타나긴 꼬리가 수면에 달을듯 말듯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뭇 날으는 모습은 경쾌하기이름에 없다.

어느 Y농장에 勤務할때 일이다. 우연히 할미새 둥지를 발견하여, 하루 이틀 계속 관찰하면서 당시 기록해 두었던 일기를 간추려 自然生活을 즐기는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心情이다.

78年 5月 10日 農場 주변 도로에 정리작업 중 누군가 작은 새알을 두개 주워 왔다. 회백색 바탕에 보랏빛 갈색의 점들이 박혀있는 예쁜알이다. 곧 조류 도감을 찾아 견주어 보니 할미새의 알이었다. 마치 고려청자기에 즉흥적으로 그려놓은 눈내리는 풍경화같은 새

알, 크기는 직경 2cm 정도로 대추알만하다. 곧 도로 제자리에 넣어주었다. 무질서한 바윗돌 틈에 예쁜 밥공기만한 보금자리였다.

5월 11일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보니 두개가 늘어 모두 다섯개가 되었다. 신기한 마음이었다. 혹시 누가 보지나 않을까 해서, 풀잎으로 주위를 꼭 덮어 두었다.

5월 12일 가만히 서서 안을 들여다 본 순간 푸르륵 거러며 어미새 두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나쁜짓하다 들킨 아이모양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미새 둘이는 멀리 가지도 않고 근처 나무에 앉아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괜찮아 안심해」하고 약속을 해줬다.

5월 13일 직원들의 출근시간보다. 조금일찍 출근하면서, 새둥지에 다달아 먼저 주위를 둘러 보았다. 어느새 한마리가 둥지에서 나와 밖에서 경계를 하던 다른 어미와 함께 돌 틈사이를 쪼르르 달려간다. 경계가 대단하다. 살짝 들여다 보았다. 다섯개가 나란히 있다. 손끝을 대어보니, 따뜻하다. 품고있는 中이었구나. 세상의 보물, 生命이 숨쉬고 있는 은밀 한곳.

5월 14일 오늘도 출근길은 온통 기대와 조바심속에 차 있었다. 할미새 집 근처에 오자 습관처럼 주위에 어미가 있나 없나부터 둘러 보았다. 보이지 않는다. 혹시 지금 알

을 품고있는 중은 아닐까 싶다 만일 어제 모양 알을 품고있는 중에 방해라도 하게된다면 어쩌랴 싶어 아쉬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5월 17일 며칠간 관찰을 못했더니 무슨일이 꼭 있을것 같다. 조심스레 휘바람을 불었다. 어느새 알아차리고는 곧장 날아서 언덕 위 나뭇가지에 앉는다. 하얀 날개가 햇살을 받아서 밝게 요동친다. 이제는 내가 보고있는 동안은 저들도 안심하고 내버려 두는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 아니나 다를까 다섯개중 한개가 둥지 밖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깨지진 않았으나,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불편을 꺼내 표시를 하고는 넣어 두었다.

5월 18일 아침부터 흐리더니 비가온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해서, 퇴근길에 바로 들렀다. 기막히다. 어느새 풀잎과 나뭇가지로 비 가리개를 하였고 물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돼있다. 신기한 일, 自然은 제각급다 살아 가도록 能力을 부여받은 것인지...

5월 19일 오늘 10일째, 혹시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어릴때 할아버지를 졸라서 보리밭 숲을 헤집고 종달새 새끼를 찾던 일이 생각난다. 사무실로 돌아와 도감을 찾아보니, 할미새의 부화기간(Hatching period)은 11~13일이고 부화후 2주 쯤이면 동우리를 떠나 독립한다

고 돼있다. 상당히 빠른 성장속도다. 2~3일 후쯤 둘러보아야겠다.

5月 23日 무심코 들여다 보는순간 가슴이 띠다. 어두운 둥지안에 가물거리는 물체, 드디어 “誕生입니다” 꼭13일째 자세히보니 새마리 뿐이다. 2개는 아직 그대로 알이다. 표시를 해두었던 것도 아직 부화가 안되었다. 어미는 근처 나무위에서 찌찌찌 -뽀뽀 - 돌이서 야단났다. 왜 훑쳐보느냐 이거껏지 큰 일이구나, 얼른 자리를 피했다. 어미는 곧 둥우리로 달려가지 않는다. 自然의 위대함.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기로 해야겠다.

5月 24日 아직 눈을 뜨지 못한채 간헐적으로 고물락거리는 생명체 병아리는 깨자마자 눈뜨고 다니는데, 아마도 할미새는 어미가 성급해서, 눈도뜨기전에 껍질을 깨어주는가 보다.

5月 26日 3일사이에 금새 털이 온몸을 덮고 날개것도 꽤 자랐다. 남은 두개의 알을 꺼내어 숙직실에서 비춰봤다. (검란) 1개는 무정란, 1개는 형성도중 중지됐구나. 밖으로 굴렀던 그것이 중지란이다.

5月 28日 이제 눈도뜨고 날개도 키졌겠지 하고 들여다 본 순간 지극히 실망이었다. 새끼가 한마리도 없다. 털이 보송보송 나고, 눈을 감은채 먹이를 달라고 고통스럽게 입을 짹짹 벌리던 새끼가 하나도 없다. 뱀이 물어간 것일까? 동네 장난꾸러기들이 찾아간 것일까? 긴장이 풀리며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다. 아마 주위환경 탓인지도 모른다. 도로주변이니 차소리, 사람소리. 게다가 남은 두알을 도둑 맞았으니(?) 불안스러워 새끼들을 이동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더 아늑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무사히 살아 주기를 빌어야지. 사무실에 앉아 실없이 조류도감만 들춰였다. 할미새의 행방은 어디인가?

(次期 게재 동물등 内容)

1. 원숭이 社會(人間社會의 축소판)
2. 사슴飼育과 신비스런 사랑
3. 캥가루 분만의 신비
3. 바다거북이 탄생과 머나먼 여행
4. 펭귄(Humbolt's Penguin)의 일생
5. 사자의 투쟁사
6. 멧돼지 飼育과 재주
7. 動物 Show와 내막
8. 一夫多婦의 물개
9. 業조사육(Purina game bird program)
10. 동물추적과 아프리카
11. 공작사육
12. 비둘기(평화와 사랑의 애호가)
13. 춤추는 홍학
14. 바다의 팬텀기 펠리칸(Pelican)
15. 기타